

일본 내 한국어 관련 분야의 시기별 /
분야별 연구 프로파일

-CiNii, NDL-OPAC 검색 결과를 이용한 양적 분석 -

金 昌 九

松 山 大 学
言語文化研究 第35卷第1号 (抜刷)
2015年9月

Matsuyama University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Vol. 35 No. 1 September 2015

일본 내 한국어 관련 분야의 시기별 / 분야별 연구 프로파일

-CiNii, NDL-OPAC 검색 결과를 이용한 양적 분석 -

韓国語関連諸研究の時期的・分野別プロフィール

-CiNii, NDL-OPAC 検索結果に基づく量的分析-

김창구 (金昌九)

1. 들어가기

본 조사 연구는 지금까지 일본 지역에서 행해진 한국어(학) 및 한국어교육 분야의 성과물들을 수집, 정리하여 그 흐름을 개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에서의 한국어 연구는 그 역사가 길고 그 양 또한 방대하여 전부를 한정된 지면에서 다루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분야별로 특징적인 논문을 서술하는 식의 기존 방식보다는 시기에 따른 분야별 논저의 출판 흐름에 주목하여 논의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¹.

2. 조사 대상 및 방법

2.1. 조사 대상 및 절차

본 조사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참조논문/도서 검색 시스템인 CiNii(国立情報学研究所学術コンテンツサービスサポート)와 NDL-OPAC(国立国会図書館

¹ 현대 한국어 연구의 개관은 志部昭平(1992), 門脇誠一(1997), 国立国語研究所(1997), 野間秀樹(2005)를 참조할 수 있다.

蔵書検索システム)에 탑재된 한국어(학) 관련 논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². 이 두 검색 시스템은 일본의 인문과학 분야에서 자주 이용되는 이른바 ‘망라적인’ 데이터베이스로, CiNii에 약 1,200만 건, NDL-OPAC에는 1,036만 건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11년 10월 현재; 中野 他, 2011).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韓國語’, ‘朝鮮語’, ‘ハングル’, ‘코리아語’ 및 ‘한국어’, ‘조선어’, ‘한글’, ‘코리아어’를 키워드로 하여 대상 논문과 도서를 검색·추출하였다(2015년 6월 13일~24일 검색).

2.2. 연구의 절차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연구들을 수집한다. 둘째, 수집한 연구물들을 편집한 후 Microsoft사의 Excel에 옮겨 중복되거나 분류 기준(다음 절 참고)에 부합되지 않은 논문과 저작물을 삭제한다. 논문(학위논문 포함)을 제외한 기타 연구물-전문서, 교재, 사전, 수험서, 교양서-은 별도의 시트에 옮겨 저장한다. 셋째, 정제된 연구물들을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2.3. 분류 기준과 분류 범주의 확정

분류 범주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설정하였다. 즉, 범주 설정에 앞서 「2014 국어 연감 논저 분류 체계」(국립국어원, 2015)와 한국어교육학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강승혜(2003), 오기노신사쿠(2015)의 범주 구분을 검토하여 1차적으로 분류 체계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일부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파일럿을 통해 귀납적으로 분류 체계를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출판 유형에 따라 ‘논문 부류’와 ‘도서 부류’로 구분하였다. ‘논문 부류’는 다시 ‘학위논문’과 ‘일반논문’으로 나누었고, ‘도서 부류’ 아래에는 ‘전

² 두 검색 시스템의 웹주소는 다음과 같다; CiNii: <http://ci.nii.ac.jp/ja>, NDL-OPAC: <http://opac.ndl.go.jp>

문서', '교양서', '교재류(수험서 포함)', '사전류'를 배치하였다³. 둘째, 분야별로는 3개의 대범주 - 언어학, 한국어학, 한국어교육학 - 를 설정한 후,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다시 12개의 중범주 -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인지 / 심리언어학, 한국어학, 한국어(학)사, 한국어방언학, 한국어정보학, 한국어교육학 - 와 42개의 소범주를 설정하였다.

연구 분야를 구별할 때에는 우선 연구물들을 3개의 대범주로 구분한 후 이를 저자를 기준으로 정렬하였다. 그런 다음, 다음의 근거들을 적용하여 연구물이 속하는 범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 ① 논문 / 저서의 제목
- ② 논문의 경우 그것이 수록된 학회지
- ③ 저자의 소속과 연구 분야
- ④ 위의 기준으로 범주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개요를 참고하거나 원문을 직접 확인한다.

시대별 구분은 언어교육학적 측면 - 예를 들어, 교재의 편찬, 교수법의 변화 등 - 이나, 교육 외적 요인들 - 이를테면, 학습자 수의 증감, 경제적인 요인이나 정치적 사건, 국가 정책 등⁴ - 은 고려하지 않고 연구자가 임의로 구분하였다.

³ '도서 부류'의 분석 결과는 일본에서 출간된 한국어 관련 논저의 전체적인 상을 살피는 데만 이용하고(3.1절), 실제적인 분석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일반논문에는 학회 발표 논문의 일부도 포함하였음을 밝혀둔다.

⁴ 한일 간에 있어서는 경술국치(1910년)나 식민지 시대(1910년~1945년), 3차에 걸친 조선어교육령(朝鮮語教育令), 해방정국(1945년 이후), 한일 국교 정상화(1965년), 일류(日流: ~1990년대), 일본 대중문화 개방 조치(1998년), 한일 월드컵(2002년), 한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표1〉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언어학	대조언어학	일반 / 기타	한국어학	방언학	문법	
		문법 (형태 / 통사)			어휘	
		어휘 / 의미			음운 / 음성	
		음운 / 음성			전산언어	
		사회 / 담화 / 화용			사전 / 코퍼스	
	사회언어학	언어변이	한국어 교육학	교육학 일반	교육사	
	언어사용	교육정책				
	인지언어학	일반 / 기타				
	심리언어학	심리언어학	습득	습득		
	한국어학	한국어학		이중언어		
한국어학	한국어학	일반 / 기타	한국어 교육학	교수학습	교사 / 학습자요인	
		문법 (형태 / 통사)			언어간 전이	
		어휘 / 의미			교수 / 학습	
		음운 / 음성			기능별 교수	
		담화			영역별 교수	
		정책			문화 / 문학교육	
	한국어 (학)사	일반	한국어 교육학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법 (형태 / 통사)			교재	
		어원 / 계통			평가	
		표기 / 문자			기타	이러닝
		음운 / 음성				코퍼스 (학습자)
		담화 / 화용				

3. 연구 동향 분석

3.1. 전체 경향 개관

앞 절의 분석 절차를 통해 총 3,267 건의 데이터를 얻었다. <표2> 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일반논문과 학위논문 이외에도, 전문서와 함께 한국어 학습 관련 도서의 발행 상황도 함께 살폈다. 이로써 한국어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할 수 있다.

< 표2 > 시기별 / 논저별 발행 건수⁵

	해방전	1946 ~ 1959	1960 ~ 1969	1970 ~ 1979	1980 ~ 1989	1990 ~ 1999	2000 ~ 2009	2010 ~ 2015	계
일반논문	11	22	43	83	109	288	812	497	1866
학위논문	-	-	1	-	9	36	71	25	143
전문서	15	1	3	2	9	17	19	13	79
한국어교재	15	4	2	18	72	95(26)	443(72)	331(42)	980(140)
사전	2	3	1	4	3	18	19	6	56
교양서	-	-	-	-	-	1	2	2	5
계	43	30	50	107	203	455(26)	1367(72)	874(42)	3127(140)

논저의 발행 추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해방 후 일시적 침체기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시기에 따라 모든 연구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0 년대 들어 모든 연구물의 수가 극적으로 늘어났으며, 그 흐름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저별로는 일반논문과 학위논문, 한국어 교재 (수험서 포함) 의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한글능력검정시험」 이 처음 실시된 1993 년과 「한국어능력시험」 이 실시되기 시작한 1997 년 이후에는 수험서의 출판도 활발해져, 현재까지 총 140 여권이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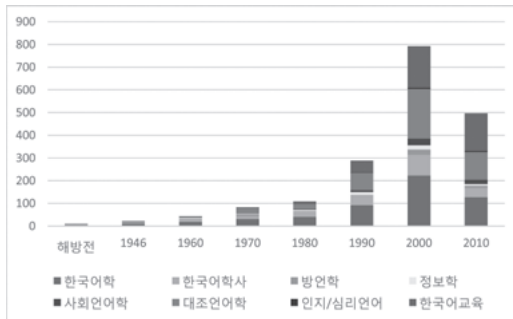
이제, 일반논문과 학위논문의 결과만을 따로 떼어내어 세부 영역별로 시기에 따른 연구 성과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 표3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년 6 월 현재, CiNii 와 NDL-OPAC 에 탑재되어 있는 한국어 관련 연구물들은 일반논문이 1,866 편, 학위논문이 143 편이었다.

⁵ 사전류와 수험서의 일부에는 한국에서 출판된 것을 일본어로 번역 출간하였거나, 한국에서 발행된 출판물을 일본측 출판사가 위탁 출간한 것들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전문서 중에는 식민지 이전에 사용된 조선어 (한국어) 혹은 일본어 교재의 문법서나 회화서의 영인본 - 예를 들어, 訓蒙字會, 倭語類解, 交隣須知, 隣語大方 등 - 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 표 1 > 에서 '계' 의 값이 해당 연구물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표3> 시기별 / 분야별 발행 건수

	해방전	1946 ~ 1959	1960 ~ 1969	1970 ~ 1979	1980 ~ 1989	1990 ~ 1999	2000 ~ 2009	2010 ~ 2015	계
①한국어학	4	11	18(1)	31	41(3)	92	223(4)	127(5)	549(17)
②한국어학사	3	6	13	13	25	43	90(5)	42(1)	245(11)
③방언학	-	-	2	8	1	2(1)	24(14)	9	48(5)
④정보학	-	-	4	3	5(4)	13(1)	19	7	51(5)
⑤사회언어학	-	-	1	1	3	8	29(5)	19(2)	61(7)
⑥대조언어학 ⁶	2	4	2	22	21(1)	77(23)	471(49)	122(14)	476(87)
⑦인지/심리언어	-	-	-	-	-	2(2)	6	5	13(2)
⑧한국어교육	1	1	3	5	13(1)	51	183(5)	166	423(9)
계	10	22	43(1)	83	109(9)	288(27)	1045(86)	497(22)	1866(143)

< 표3>을 통해, 일반논문의 경우, 「한국어학」이 29.4%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조언어학」은 25.5%, 「한국어교육학」은 22.6%이었다. 학위논문에서는 「대조언어학」이 60.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한국어학」이 11.8%, 「한국어(학)사」가 7.6%, 「한국어교육학」이 6.2%, 「사회언어학」 4.8%, 「방언학」과 「한국어정보학」 3.4%, 「인지언어학/심리언어학」이 1.3%이었다.



< 그래프1> 시기별 / 분야별 발행 건수

⁶ 대조언어학은 연구의 주 대상이 되는 언어인 목표어와 그 언어의 분석을 위해 대조되는 언어인 참조어로 나뉜다. 예컨대, 한일이 대조라고 한다면, 한국어가 목표어가 되고 일본어가 참조어가 된다. 일한 대조는 그 역이 된다. 따라서 일본의 대조언어학 논저들은 일본어를 목표어로 하여 작성된 일한대조 일 가능성이 높다. 마땅히 한일대조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겠으나, 이 연구들이 일본의 한국어학 연구와 한국어교육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논저를 함께 처리하였다.

한편, < 표3 > 의 세부 분야는 「한국어학 영역 (①~④)」, 「언어학 영역 (⑤~⑦)」, 「한국어교육학 영역 (⑧)」 으로 묶을 수 있다. 각 영역별 연구물을 전체 영역의 연구물 수로 나눈 비율은 다음과 같다



〈그래프2〉 일반논문의 영역별 비율 〈그래프3〉 학위논문의 영역별 비율

3.2. 영역별

3.2.1. 언어학 영역

(1) 대조언어학

「대조언어학」은 양적 측면에서 「한국어학」을 제외하고 단일 주제 영역으로서는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일반논문의 편수는 240 편, 학위논문의 수도 87 편에 이른다. 하위 분야별로는 일반논문의 경우, ‘문법’ 분야의 연구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담화 / 화용론’ 관련 연구가 16%, ‘어휘 / 의미론’이 15%, ‘음운 / 음성학’ 관련 논문이 9% 이었다. 학위논문 역시 일반논문과 유사한 순위 경향을 보였다: ‘문법’ (58%) > ‘담화 / 화용’ (19.5%) > ‘음운 / 음성’ (5.7%).

세부 분야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법’ 분야의 경우 피동·사동 구문, 시제와 상(‘~고 있다’와 ‘-어 있다’, ‘-어 놓다’, ‘-어 두다’ 등 포함)에 관한 논문이 많았다. 수수동사와 수식-피수식어 관계, 가능 표현을 다룬 연구도 일부 있었다. 형태론 분야에서는 ‘조사(보조사 포함)’에 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하다 동사’나, 접사, 수량사, 활용에 관한 연구도 일부 발표되었다. ‘어휘 / 의미론’에 관해서는 주로 의미론적 관점에서 특정 어휘의 의미속성을 밝히려 하거나, 한일 양국어에 공통하는 색채어, 의성어·의태어, 신체어,

감각어, 한자어, 연어와 관용표현, 기본어휘 등을 비교한 연구가 많았다. ‘음운/음성’ 분야에서는 양국 언어의 특정 음절 구조를 비교하거나, 운율적 특징을 음향음성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눈에 띈다. ‘사회언어학/담화/화용’ 분야에서는 특히 경어법에 주목하여 두 언어의 경어 체계 전반을 분석하거나, 경어 사용 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많았다. 이외에도 호칭, 언어 행동(변명, 의뢰, 침묵, 칭찬, 감사와 사죄, 요구 담화), 지시어의 용법에 관한 대조언어학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표4〉 대조언어학 영역의 시기별 / 하위 분야별 연구 동향

	해방전	1946 ~ 1959	1960 ~ 1969	1970 ~ 1979	1980 ~ 1989	1990 ~ 1999	2000 ~ 2009	2010 ~ 2015	계
문법	1	2	1	7	14(1)	49(17)	110(27)	58(6)	240(51)
어휘 / 의미론	0	1	1	3	1	11(2)	28(9)	21(2)	75(13)
음운론 / 음성학	1	-	-	1	-	3(2)	27(2)	13(1)	45(5)
사회 / 담화 / 화용	-	-	-	1	-	6(2)	43(10)	27(5)	77(17)
일반 / 기타	-	1	-	10	6	8	11	3	39(0)

(2) 사회언어학

「사회언어학」 분야를 다룬 연구는 모두 68 건으로, 일반논문이 61 편, 학위논문이 7 편이 발표되었다. 하위 영역별로는 ‘언어변이’에 관한 연구가 학위논문 7 편을 포함, 총 51 편이 보고되었고(75%), ‘언어사용’ 연구는 일반논문만 19 편(27.9%)이 발표되었다. 연구의 대상 지역별로는 중국 연변, 하얼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중국 조선어(한국어)를 다룬 논문이 51%(일반논문: 20 편, 학위논문: 5 편)로 가장 많았고, 일본 지역이 18.3%(일반논문: 8 편, 학위논문: 1 편), 구소련 지역이나 미국 지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변종 연구가 일부 발표되기도 하였다. ‘언어사용’ 연구는 경어법을 다룬 연구가 5 편(26.3%), 호칭 사용이 3 편(15.7%)이었다. 이외에, 거절(2 편)이나 의뢰(1 편), 불만(1 편), 권유(1 편) 장면에서의 언어 사용과 언어행동(3 편), 제스처(1 편), 세대별 언어차이(1 편)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

< 표5> 사회언어학 영역의 시기별 / 하위 분야별 연구 동향

	해방전	1946 ~ 1959	1960 ~ 1969	1970 ~ 1979	1980 ~ 1989	1990 ~ 1999	2000 ~ 2009	2010 ~ 2015	합계
언어변이	-	-	-	-	1	5	20(5)	16(2)	42(7)
언어사용	-	-	1	1	2	3	9	3	19(0)

주) ‘언어변이’ : 성별 언어, 계층별 언어 변이, 민족 방언 연구 등을 포함. ‘언어사용’ : 담화분석 (대화분석)을 제외한 호칭어 / 경어법, 언어 태도 등.

(3) 인지 / 심리언어학

비교적 최근 들어 연구가 활성화된 분야인 관계로, 타 연구 분야에 비해 연구의 수가 많지 않다. 「심리언어학」 분야의 연구가 4 편 (학위논문 2 편 포함), 「인지언어학」 접근법을 이용한 연구가 11 편이었다. 세부 주제로는 「심리언어학」의 경우, 단어의 인지과정을 실험심리학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2 편 (학위논문), 단어의 점화 효과 (priming effect) 를 살핀 연구가 2 편이 있었다. 「인지언어학」으로 분류된 논문에서는 격조사나 특정 동사 (예를 들어, ‘나가다’, ‘내다’, ‘당기다’ 등) 를 인지언어학 이론 (원형이론 (Prototype Theory) 이나 Talmy 등의 개념적 혼성 이론 (Conceptual Blending Theory) 등) 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 표6> 인지 / 심리언어학 영역의 시기별 / 하위 분야별 연구 동향

	해방전	1946 ~ 1959	1960 ~ 1969	1970 ~ 1979	1980 ~ 1989	1990 ~ 1999	2000 ~ 2009	2010 ~ 2015	계
인지언어학	-	-	-	-	-	1	5	5	11(0)
심리언어학	-	-	-	-	-	1(2)	1	-	2(2)

3.2.2. 한국어학 영역

(1) 한국어학

「한국어학」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분야이다. 하위 영역별로는 ‘문법’ 분야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였고 (39.9%), 그 뒤를 이어 ‘음운 / 음성학’ (16.9%), ‘정책’ (14.4%), ‘어휘 / 의미론’ (14.1%) 분야의 순이었다. 세부 분

야별로는 ‘문법’의 경우, 통사론적 연구(113편; 학위논문 4편 포함)와 형태론적 연구(113편; 학위논문 3편 포함)의 비율이 거의 일정하였다. 참고로, 형태론 연구에서는 조사와 어미, 접사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였고, 통사론에서는 상과 피사동법, 양태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어휘/의미론’ 분야에서는 어휘론 분야의 연구가 49편(학위논문 1편 포함), 의미론 분야의 연구가 31편이었다. 의미론 분야에서는 특히 개별 어휘(주로 부사)의 의미에 천착한 논문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음운/음성학’ 분야에서는 음운론적 연구가 76%를 차지하였다. 음운 단위와 음운 변화, 음성 인식과 음성을 음향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담화/화용론’ 분야의 연구에서는 조사나 어미의 기능을 화용론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담화적 차원의 연구는 한 편도 발견되지 않았다. ‘정책’ 분야에서는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8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지역적으로는 중국과 남북한, 시기적으로는 식민지 시대와 현대, 주제별로는 한글 전용 문제, 한자 간략화 문제, 국어 순화 운동, 표준어 규정 등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기타’ 분류에서는 한국어(조선어)의 일반적인 특징을 개괄한 논문, 분야별/지역별 한국어 연구 동향을 보고하고 있는 논문,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어(조선어)의 명칭에 관한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표7> 한국어학 영역의 시기별/하위 분야별 연구 동향

	해방전	1946 ~ 1959	1960 ~ 1969	1970 ~ 1979	1980 ~ 1989	1990 ~ 1999	2000 ~ 2009	2010 ~ 2015	계
문법	-	-	4	7	13(1)	43	96(3)	56(3)	219(7)
어휘/의미론	1	-	1	9	4	7(1)	31	25	79(1)
음운론/음성학	2	4	5(1)	4	7(2)	23(2)	31	14(1)	90(6)
담화/화용론	-	-	-	-	1	1	5	11(1)	18(1)
정책	-	7	3	4	8	9(1)	38(1)	11	80(2)
일반/기타	1	-	5	7	8	9	22	10	63(0)

(2) 한국어(학)사

한국어사 및 한국어학사에 관해서는 256편(학위논문 11편 포함)이 보고되어 있다. 하위 영역별로는 ‘문법’을 다룬 연구가 19.1%, ‘음운/음성’ 연구가

18.2%, ‘어원 / 계통’ 연구가 28.5%, ‘일반 / 기타’ 가 23.8% 이었다. 세부 분야별로는 ‘문법’의 경우, 총 49 편 (학위논문 3 편 포함)의 논문 중에서 5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형태와 관련한 것이었다. 시기적으로는 고대 한국어가 3 편, 중세 한국어가 39 편, 근대 한국어가 3 편, 기타 통시적인 연구가 4 편이었고, 주로 한국어나 일본어 학습서가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어원 / 계통’ 분야에서는 지명의 기원이나 한국어계 / 일본어계 어휘, 고대·중세·근대 한국어의 표기 문제와 철자법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음운 / 음성’ 분야의 연구는 특정 음운의 국어사적 특징이나 음운 현상, 일본어로 간행된 문법서나 회화서의 한글 음주 (音註)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화용’ 분야로 분류된 3 편 (학위논문 1 편 포함)은 모두 중세 한국어의 경어법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 기타’에는 한국어사 및 한국어학사의 개론적인 주제를 다루거나 소개한 논문들을 포함하였다.

< 표8 > 한국어 (학) 사 영역의 시기별 / 하위 분야별 연구 동향

	해방전	1946 ~ 1959	1960 ~ 1969	1970 ~ 1979	1980 ~ 1989	1990 ~ 1999	2000 ~ 2009	2010 ~ 2015	계
문법	-	1	-	4	4	7(2)	22(1)	8	46(3)
어원 / 계통		1	5	3	10	22	24	7(1)	72(1)
표기 / 문자	2	2	2	1	2	3	8	3	23(0)
음운 / 음성	-	1	3	3	7	3(1)	21(1)	7	45(2)
화용	-	-	-	-	-	1(1)	1	-	2(1)
일반 / 기타	1	1	3	2	2	7(1)	24(2)	17	57(4)

(3) 한국어 방언학

「방언」을 주제로 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았다. 다만, 2000 년대 이후의 증가가 눈에 띈다. 세부 분야별로는 ‘음운 / 음성’ > ‘어휘 / 의미’ > ‘문법’ 순의 분포를 보였다. ‘액센트’ 를 다룬 연구가 ‘음운 / 음성’ 연구의 70%(34 편 : 학위논문 4 편 포함) 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역별로는 연구논문의 경우, 경상방언 (대구와 부산, 진주 포함) 이 19 편, 서울방언이 11 편, 전라방언 (광주, 여수, 진주를 포함) 이 6 편, 그리고 충청방

언과 제주방언이 각각 1 편씩이었다. 학위논문은 서울방언과 대구방언, 경남방언, 전라방언, 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논문이 각각 1 편씩 보고되어 있다.

< 표9 > 한국어 방언학 영역의 시기별 / 하위 분야별 연구 동향

	해방전	1946 ~ 1959	1960 ~ 1969	1970 ~ 1979	1980 ~ 1989	1990 ~ 1999	2000 ~ 2009	2010 ~ 2015	계
문법	-	-	-	1	-	-	1	-	2(0)
어휘	-	-	1	1	-	-	1	1	4(0)
음운 / 음성	-	-	1	6	1	2(1)	22(4)	8	42(5)

(4) 한국어 정보학

「한국어 정보학」 관련 연구는 현재까지 30 편의 연구논문과 5 편의 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 ‘전산언어학’ 관련 연구는 공학적 입장에서 한국어를 분석한 (parsing) 연구와, 한국어 자료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거나 분석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일반논문 11 편, 학위논문 5 편이 발표되었고, 후자의 주제로 일반논문 7 편이 보고되어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중세 한국어의 코퍼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 검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시도가 있었다(5 편)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사전 및 코퍼스’ 관련 연구는 총 21 편으로, 주로 한국어 사전(조선어 사전)을 소개하거나, 사전의 구성 요소, 구성 체계를 분석한 논문이 많았다(14 편). 한국어 학습사전(1 편)이나 웹 사전 개발(4 편)에 관한 연구, 한국어 구어 말뭉치 구축(1 편)에 관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다.

< 표10 > 한국어 정보학 영역의 시기별 / 하위 분야별 연구 동향

	해방전	1946 ~ 1959	1960 ~ 1969	1970 ~ 1979	1980 ~ 1989	1990 ~ 1999	2000 ~ 2009	2010 ~ 2015	계
전산언어	-	-	-	1	5(4)	11(1)	9	4	30(5)
사전 / 코퍼스	-	-	4	2	-	2	10	3	21(0)

3.2.3. 한국어교육학 영역

(1) 한국어교육학 일반

최근 들어 연구가 활성화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98 편의 일반논문과 1 편의 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 하위 분야별로는 ‘한국어 교육사’를 다룬 논문이 13 편, ‘교육 정책’을 다룬 논문이 6 편(학위논문 1 편 포함)이 있다. ‘한국어교육 일반’에 관한 논문에는 한국어교육 현황을 소개하거나 한국어 연수 결과를 소개한 논문이 81 편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이 주제의 논문들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 표11 > 한국어교육 일반 영역의 시기별 / 하위 분야별 연구 동향

	해방전	1946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계
		~ 1959	~ 1969	~ 1979	~ 1989	~ 1999	~ 2009	~ 2015	
교육사	-	-	-	-	-	5	4	4	13(0)
교육 정책	-	-	-	-	-	-	2(1)	2	4(1)
교육 일반	-	-	2	2	6	12	33(1)	26	81(0)

※) ‘교육 일반’ : 한국어교육 현황,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소개, 국외 한국어 연수 결과 등을 보고한 논문

(2) 한국어 습득

지금까지 195 편의 일반논문과 6 편의 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 2000 년대를 기점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분야이며,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하위 주제별로는 ‘교사 / 학습자 요인’이 34 편(학위논문 3 편 포함), ‘습득’이 29 편(학위논문 3 편 포함) ‘이중언어 교육’이 24 편, ‘언어간 전이’가 14 편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 그 특징들을 간략히 요약하면, ‘한국어 습득론’ 분야에서는 습득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2 편, 언어 구조의 처리나 습득에 관한 논문이 9 편(학위논문 2 편 포함), 음운 습득이 10 편(학위논문 1 편 포함), 어휘가 8 편이었다. ‘교사 / 학습자 요인’은 한국 및 한국어, 한국 문화 등에 대한 학습자의 의식이나 이

미지를 조사한 연구가 18 편이었고, 한국어 학습동기가 5 편, 요구분석 5 편이었다. 그 외에도 학습 전략과 학습 스타일, 신념과 불안감을 다룬 연구가 각각 1 편씩이었다. ‘언어간 전이’를 다룬 논문은 주로 어휘 상의 오류(특히 한자어 어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중언어 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는 일본 지역 교포 학생들의 계승어 교육에 관한 연구가 13 편, 중국 지역이 4 편, 미국 지역이 2 편이었다. 그 외, 이중언어(한국어-일본어) 아동의 언어 습득을 다룬 연구도 2 편이 있었다

< 표12 > 한국어 습득론 영역의 시기별 / 하위 분야별 연구 동향

	해방전	1946 ~ 1959	1960 ~ 1969	1970 ~ 1979	1980 ~ 1989	1990 ~ 1999	2000 ~ 2009	2010 ~ 2015	계
습득론	-	-	-	-	2(1)	5	7	12(2)	26(3)
교사 / 학습자	-	-	-	-	1	-	20(2)	10(1)	31(3)
언어간 전이	-	-	-	-	-	2	8	4	14(0)
이중언어 교육	-	-	-	-	1	-	13	10	24(0)

※) ‘습득’: 문법 항목의 습득 순서, 발달 순서, 교수법, 문장 처리 과정 등을 (주로) 실험을 통해 밝히려는 연구. ‘이중언어 교육’: 해외 거주 한국인을 위한 모국어 교육, 이중언어 화자의 언어 습득

(3) 한국어 교수·학습

「한국어교육학」영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지금까지 100 편의 일반논문이 보고되어 있다. 하위 분야별로는 문법이나 어휘, 발음 등의 교육을 다룬 ‘영역별 교수’ 분야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교수·학습론’ 분야의 연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읽기나 말하기, 듣기, 쓰기 기능의 교수·학습이 포함되는 ‘기능별 교수’와, ‘문화/문학 교수’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일반적 논의가 21 편이었고, 그 외, TA를 활용한 교수 기법이 2 편, 커뮤니케이션 카드, 언어 유희, 비디오, 채트룸을 활용한 한국어 교수가 각각 1 편씩이었다. ‘기능별 교수’에 관한 연구는 3 편

의 논문만이 발표되었는데, 모두 말하기 교수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영역별 교수’ 논문에는 문법 교육과 발음 교육에 관한 논문이 각각 22 편이었고, 어휘 교육을 대상으로 연구가 17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문화/문학 교육’ 분야는 총 8 편의 논문 중 이문화 이해 관련 논문이 6 편, 한국 소설 텍스트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논문이 2 편이었다.

< 표13 > 한국어 교수 · 학습 영역의 시기별 / 하위 분야별 연구 동향

	해방전	1946 ~ 1959	1960 ~ 1969	1970 ~ 1979	1980 ~ 1989	1990 ~ 1999	2000 ~ 2009	2010 ~ 2015	합계
교수·학습	-	-	-	-	-	4	13	13	30(0)
기능별 교수	-	-	-	-	-	-	3	-	3(0)
영역별 교수	-	1	-	1	1	3	27	26	59(0)
문화/문학교수	-	-	-	1	-	1	2	4	8(0)

※) ‘교수/학습’: 교수법 일반, 교육 실천에 관한 연구. ‘기능별 교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의 교수 방법을 다룬 연구, ‘영역별 교수’: 문법, 어휘, 발음(음운변화, 억양 등 포함), 담화 등의 한국어의 내용적 측면을 다룬 연구.

(4) 한국어 교육과정

「한국어 교육과정」 영역은 ‘교육과정’ 과 ‘교재’, ‘평가’ 로 구분하였다.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교재’ 로, 47 편의 일반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분야는 다시 교재 일반, 교재 개발, 교재 분석, 실라버스로 하위 분류할 수 있는데, 총 47 편의 논문 중, 교재 일반(현황 포함) 을 다룬 연구가 11 편, 교재 개발의 원리 및 구성에 관한 논문이 11 편, 실라버스가 2 편, 교재 분석 논문이 23 편이었다. 대부분 통합 교재를 대상으로 하였고, 기능별 교재를 다룬 연구는 3 편에 불과하였다. ‘평가’ 에 관한 논문은 22 편이며, 「한국어능력시험」 을 주제로 한 학위논문이 1 편 보고되어 있다. 언어 능숙도 평가와 성취도 평가(형성평가 포함) 에 대해 소개하거나 분석한 논문이 10 편(학위논문 1 편) 이 있고, 그 외 언어 능력(어휘력), 자기평가, 수행평가, 형성평가 등의 개발이나 실천 결과를 다룬 논문 등이 있다.

〈표14〉 한국어 교육과정 영역의 시기별 / 하위 분야별 연구 동향

	해방전	1946 ~ 1959	1960 ~ 1969	1970 ~ 1979	1980 ~ 1989	1990 ~ 1999	2000 ~ 2009	2010 ~ 2015	계
교육과정	-	-	-	-	-	2	4	4	13(0)
교재	1	-	1	1	1	7	22	14	47(0)
평가	-	-	-	-	1	2	12(1)	6	21(1)

주) ‘교재’ : 교재 일반, 분석, 개발, 교수요목을 포함. ‘평가’ : 성취도 평가, 숙달도 평가, 기능별 평가, 자기 평가 및 문항 개발, 분석 등을 포함.

(5) 기타

‘이러닝’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40 편의 연구논문이 보고되어 있다. 초기에는 주로 작문 연습 시스템이나 web 교재 개발, 자율학습용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실천을 다루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전자교과서의 개발, 학습관리시스템(LMS)이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학습자 코퍼스’에 관한 논문은 2 편으로, 작문 코퍼스의 구축이나 언어교육에의 활용 문제를 각각 다루고 있다.

〈표15〉 이러닝과 코퍼스 분야의 시기별 / 분야별 연구 동향

	해방전	1946 ~ 1959	1960 ~ 1969	1970 ~ 1979	1980 ~ 1989	1990 ~ 1999	2000 ~ 2009	2010 ~ 2015	계
이러닝	-	-	-	-	-	8	12	20	40(0)
학습자 코퍼스	-	-	-	-	-	-	1	1	2(0)

주) ‘이러닝’ :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 인터넷을 활용한 통신 교육, 원격 교육을 포함.

4. 나가기

이상으로, 일본의 논문 검색시스템인 CiNii 와 NDL-OPAC 에 수록된 한국어 관련 논저들의 경향을 시기와 주제로 나누어 양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 (여럿 중에서) 는 한국어학이나 대조언어

학 등의 연구 성과가 ‘한국어교육 현장’에 충분히 응용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찍이 野間 (200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의 한국어 연구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 연구’와는 달리) ‘외국어 연구 (그리고 언어 연구)’이며, ‘한국어교육이라는 계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에는 이론적, 실증적인 연구 분야와 교육 현장 간을 아우르는 학제적 연구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된다.

한편, 본고와 같은 성격의 글은 관련 논저들을 꼼꼼히 고찰하여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과 성과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외부적 제약과 연구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양적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질적 연구를 통해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 강승혜 (2003).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연구 동향분석, 한국어교육, 14-1, 1-2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오기노신사쿠 (2015). 일본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최근 동향 분석 -2008~2014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6-1, 155-19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国立国語研究所 (1997)『日本語と外国語との対照研究Ⅳ「日本語と朝鮮語」(上巻)回顧と展望編』くろしお出版。
- 門脇誠一 (1997)「現代朝鮮語の研究 (文法以外の分野)」国立国語研究所『日本語と外国語との対照研究Ⅳ 日本語と朝鮮語 (上巻)』東京：くろしお出版。
- 野間秀樹 (2005)「韓国と日本の韓国語研究 - 現代韓国語の文法研究を中心に -」『日本語学』24(8), 東京：明治書院。
- 中野 他 (2011)「国立国語研究所「日本語研究・日本語教育文献データベース」の特長 - 「専門特化型」データベースの有用性 -」人文科学とコンピュータシンポジウム。
- 志部昭平 (1992)「日本における朝鮮語研究1945 ~ 1991」千葉大学人文研究第21号, 千葉大学文学部。